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정미숙**·유세분***

차 례

- | | |
|------------------------|------------------------|
| 1. 서론 | 4. '타자-되기', 젠더 구축과 윤리학 |
| 2. '기괴한' 몸, 젠더 조롱과 폭력 | 5. 결론 |
| 3. '부인된 애착', 젠더 해체와 모색 | |

국문초록

본고는 박완서의 전 시기에 걸친 단편을 대상으로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인의 젠더변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완서는 노인의 젠더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30여 년에 걸쳐 단편에 담아 전개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노인성 문학을 성취해 내고 있다. 젠더는 문화연구의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노인의 젠더는 진지한 성적 관심의 대상에선 벗어난 것이었다. 노인의 젠더 탐색은 우리 안에서 자행되어온 배제와 편견의 논리인 폭력성을 고발하고 증언해 온 박완서 서사의 한 축이다.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 시학은 초기-중기-후기의 단계로 나뉘지며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한다. 초기에는 주변화된 노인의 '젠더'가 기괴한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부산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수

(uncanny) 몸을 통해 환기된다. ‘기괴함’은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과 노인을 읽는 우리들의 부정적 시선을 함의하는 것이다. 중기에는 노인의 젠더가 ‘부인된 애착’(disavowed attachment), 섹슈얼리티의 양가성을 통하여 새롭게 조명된다. 젊은이/노인, 미/추, 선/악의 이분적 도식을 해체하면서 젠더를 모색한다. 후기에 이르면 전환적 발상을 가진 개별자를 통하여 고유하고 담대한 노인의 젠더를 구축한다. 노인의 젠더 구축은 도저한 생의 질서에 기반한 긍정이자 진정한 주체 회복으로 젠더윤리 회복이란 지평을 긋는다.

박완서는 노년소설의 젠더시학을 통하여 우리 안의 편견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설 새로운 노인 주체, 타자-되기의 수행을 통하여 자신과 타자의 동시적인 변이를 도모하는 젠더 윤리, 젠더 정치학을 달성하고 있다.

주제어 : 박완서, 젠더, 언케니, 노년소설, 폭력, 양가성, 주디스 버틀러, 타자-되기

1. 서론

박완서는 <나목>으로 등단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자행되는 편견과 폭력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증언과 성찰을 견지하고 있다. 박완서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는 ‘전쟁’과 ‘젠더’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젠더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는 구별짓기가 빛은 폭력적 이데올로기이다. 이 글은 ‘젠더’를 통하여 박완서 소설을 다시 읽고자 하며, ‘노인/노파’¹⁾의 젠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젠더구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노인, 노파를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쓰고자 한다. 박완서는 늙은 남자/할아버지/노인으로 ‘늙은 남성’을 수식하고 늙은 여자/할머니/노파로 ‘늙은 여성’을 수식한다. 이를 존중하여 본고에서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노인네’는 소설에서 남녀 모두에 수식되는 까닭에 맥락에 따라 또한 그렇게 사용한

주지하듯이 ‘젠더’는 우리 안의 폭력성을 증언하는 정치적 이슈이다. 탄생 순간 우리는 문화적 성(gender)이라는 질서에 종속되고 젠더 규범과 젠더 규약, 또 정상적 성 경향이 부과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적 주체가 된다. 이에 ‘젠더’는 이성애/동성애, 다수/소수, 중심/주변의 구분과 위계로 작동하며 배제와 편견을 생산하는 권력기제이다.

하나, ‘노인네’ ‘늙은이’의 성은 성적 범주나 논의의 장에서도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노인네’는 곧 ‘늙은 몸’으로 성적 관심의 중심에 놓이지 못한 까닭이다. 박완서는 ‘타자’인 노인, 노인성의 젠더를 그 구체성으로 드러내고 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가장 젊은 장르인 단편을 통하여 30여년간 끈질긴 관심을 기울이며 작가의 기질적 개성이 드러나는²⁾ 노인성 문학을 성취해 내고 있다.

박완서 노년소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노인을 유형화하고 사회 문제로 다룬 경우³⁾,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 소외를 부각한 경우⁴⁾, 노인의 체험과 아픔에 초점을 맞춘 경우⁵⁾, 그리고 노년소설의 개념정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⁶⁾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

-
- 다. 하나, ‘노파’의 뉘앙스가 다소 부정적이라서 총칭하여 언급할 때 성별구별을 넘어서 ‘나이든 어른’이란 의미에서 노인(老人)이라 단일하게 표기하도록 하겠다.
- 2)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인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264쪽.
 - 3)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10쪽.
 - 4) 김은영,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 가족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5) 박상미, 「박완서 소설연구 -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6) 서정자, 「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 - 최근 10년의 노년 소설에 나타난 노인 의식과 서사구조」, 초당대학교 논문집, 1995, 12.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김윤식 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황국명, 「한국소설의 말년에 대한 사유」, 『오늘의 문예비평』, 2008년 가을호, 통권 70호, 산지니.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화회, 2008. 12. 이정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들 삶의 변화 양상 - ‘긍정적으로 늙어가기’의 관

척을 보인다.

노년소설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노년소설의 개념은 “나이보다는 노년 인물이 주요인물이고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갈등이 서사골격을 이루고 있을 것,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국면에 대한 천착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정의에 따른다.⁷⁾ 연구사 검토결과 박완서 노년소설에 있어 노인의 젠더 문제는 언급되고 있으나 일부 작품에 한정하여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박완서의 전 시기에 걸친 단편을 통하여 노인의 젠더가 어떻게 구성되고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젠더의식의 한 체계인 젠더시학을 밝혀내고자 한다.

‘젠더’개념은 몸, 젠더, 섹슈얼리티가 구분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모두 ‘젠더’라고 규정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따른다.⁸⁾ ‘젠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고 제도 담론의 결과로 생산된 규범이다. 따라서 젠더연구는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뒤집어 보는 것

점에서], 『현대소설연구』 제4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8.

7) 노년소설의 세부요건으로는 노인을 60세 이상 65세 이하를 최저 노령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 문제는 외/내부의 ‘노인 의식’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변정화, 「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 이선의 <이사>와 <뿌리내리기>를 대상으로」,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174-175쪽. 김미현은 노인, 노년과 다른 노인성 문학이란 용어를 쓰며 존재론적인 양상으로서의 노인성, 문학의 소재가 아닌 본질로서의 약자나 타자의 문제를 호출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김미현, 「웬 아임 올드」,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인을 말하다』편, 황금가지, 2004, 282쪽. 필자는 노년소설의 개념에 이미 존재론적인 양상으로서의 노인성, 타자성의 특성이 함의되어 있다고 보아 ‘노년소설’이란 포괄적 용어를 차용하여, ‘젠더시학으로 노인의 노인성과 본질로서의 타자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8) 버틀러는 몸의 ‘인식성’과 욕망의 ‘근원성’을 만드는 것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모두 젠더라고 주장한다. 셋 다 사회적 구성물이고 제도 담론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이다. 성의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만들어지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노인의 젠더연구는 노인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존을 파헤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박완서는 초기-중기-후기의 단계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과 화자의 시점변주를 통해 노인의 타자성과 주체성을 아우르며 변증적으로 고양되는 젠더시학의 한 지평을 달성하고 있다.⁹⁾

2. '기괴한' 몸, 젠더 조롱과 폭력

박완서 초기단편¹⁰⁾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설은 <그 살벌했던

9) 텍스트로 삼은 박완서 단편소설집은 먼저, '문학동네'에서 펴낸 단편소설전집 6권과 최근에 나온 소설집 한 권을 덧붙여 모두 7권이다. 문학동네의 '박완서단편소설전집'은 초판이 1999년산이나 최근판을 선택하였다. 텍스트의 면면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박완서 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 문학동네, 2008. 박완서 2, 『배반의 여름 2』, 문학동네, 2006. 박완서 3,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문학동네, 2006. 박완서 4,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박완서 5,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06. 박완서 6,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9 이다. 연도가 다른 것은 독자의 선호에 따른 개정판 1, 2쇄의 생산차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소설집인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 지성사, 2007이다. 『친절한 복희씨』의 경우 일관성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7'번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단편소설집 7권 안에서 젠더 의식, 젠더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텍스트를 엄선하여 초기, 중기, 후기로 이어지는 젠더의 한 체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초기(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 중기(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 후기(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로 구분되었다. 간단하게 텍스트와 발표연도, 그리고 단편소설전집 권수로 표시한다. 초기: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 2), <황혼>(1979, 3), <천변풍경>(1981, 3), <जू디할머니>(1981, 3) 중기: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 4), <저물녘의 황홀>(1985 4), <저문 날의 삽화 5>(1988, 5),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1992, 5) 후기: <마른 꽃>(1995, 6),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997, 6), <너무도 쓸쓸한 당신>(1997, 6), <그리움을 위하여> (2001, 7), <대범한 밥상>(2006, 7).

10) 참고로, 초기-중기-후기의 작품 시기에 따른 박완서의 창작연령을 알아보면, 초

날의 할미꽃>(77)이다. 박완서는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던 어느 산골 마을에서 젠더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던진 할머니의 몸을 주목한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전쟁(6.25)’ 와중이라는 사실을 제외 하곤 거의 현실감이 없다. 소설 무대는 ‘삼태기에 안기듯이 순한 산에 안긴 이 오붓하고 점잖은 마을’ ‘달래마을 사람들’ 이라는 정태적 구도를 취하고 있다. 전쟁 중이라 남자들은 전장에 동원되고 여자들만 남은 ‘오붓하고 점잖은 마을’에 양코배기들이 쳐들어와 여자를 내어 놓아라 위협한 것이다. 마을의 근간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여 마을 산신제를 지내던 근엄한 노파가 젊은 여인들을 대신하여 ‘희생공희’(犧牲供犧)의 제물로 나선다.

드디어 화장은 완성됐다. 거울을 본 노파가 만족한 듯 웃었다. 그 웃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쥐어뜯 것처럼 처참한 교태가 섞인 웃음이어서 보고 있던 여자들은 다 같이 섬뜩했다. (288) 양코배기들은 하나같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마룻바닥에서 허리를 비틀고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웃고 있었다. (291)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화장을 하고 교태 섞인 웃음을 머금고 선 노파의 몸은 ‘기괴’(uncanny)하다. 이 기괴함은 노인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들이 성적인 존재로 드러날 때 발생하는 ‘몸-이미지’이다. 익숙하다고 생각한 노인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발생하는 기괴함은, 노인의 몸과 성에 대한 타인들의 고정관념¹¹⁾이기도 하다.

기(40대 중반-50대 초반), 중기(50대 중반-60대 초반), 후기(60대 중반-70대 중반)이다. 작가의 연령과 작품의 깊이는 일치할 수도,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11) 독어원문에는 ‘집과 같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진 ‘unheimlich’라는 낱말로 표현되어 있다. 영역본에서는 ‘uncanny’, 즉 ‘기괴한’, ‘기분나쁜’의 뜻으로 표현된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두려운 낯설음” “두려운 이상함” 정도가 될 것이다. 두려운 낯설음이라는 감정은 공포감의 한 특이한 변종인데,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오래 전부터 친숙했던 것에서 비롯하는 감정이다. 이러한

“처참한 교태가 섞인 웃음”을 머금고 희생공희로 나선 노파의 ‘숭고한 몸’은 웃음과 섬뜩함을 동시에 내포하는 기괴한 몸이다. 노파의 몸은 일시에 양코배기들의 성욕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몸 아닌 몸, 여성 아닌 여성, 젠더상실을 드러내는 실재이다.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이것이 던지는 파장은 심각하다. 그 기저에 깔린 것은 조직의 위기 시에 일차적으로 희생되고 버려질 수 있는 타자가 ‘노파’라는 사실이다. 지켜져야 하는 젊은 여성과 버려질 수 있는 노파라는 몸의 이분법적 구도는 비체(abjection)인 노파의 기원으로 작동한다.

또 다른 노파 이야기는 의연한 숫총각 김일병의 총각 딱지를 떼어주어 무사귀환의 초석을 다진 경우이다. 할머니는 김일병에게 덧씌운 저주, “숫총각은 총알을 제일 먼저 맞는다”는 미신을 피해 주기 위해 몸을 던진다. 할머니의 무모한 행위는 전쟁에 나서는 아들 같은 김일병의 위태로운 목숨을 위한 것이었으나, 김일병에게 이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불결감” “혐오감”으로 남는다. 김일병이 할머니의 환희와 만족의 표정을 “휴머니스트의 미소”로 수정하여 해석하기까지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머니의 외설성은 ‘정욕을 통제하는’ 이상적인 젊은 남성의 젠더 이미지와 배치¹²⁾되면서 극대화된다. 문제는 앞의 이야기처럼 반복되면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 시에 보호해야 할 젊은 남/여를 위하여 버려질 수 있는 도구적 존재, 수단¹³⁾으로서 노파의 몸이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소

감정 발생의 중요한 조건을 엔취는 “지적인 불확실성”,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방향을 잃게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6, 100-103쪽.

12) ‘신체적인 아름다움’은 남성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상적인 남성상과 아웃사이더들은 ‘신체적인 아름다움’으로 구분되었다. 추함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특성과도 연결되었다. 어떤 사람의 외모가 추하다는 것은 그가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추함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특성을 띠고 있다. 조지, L. 모스, 이광조 옮김, 『남자의 이미지』, 문예출판사, 2004, 98-103쪽.

13) 폭력이나 아니냐의 구분은 ‘윤리적 상황의 개입’과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간명하게 판단된다.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발터 벤야민(최성만 옮김),

설의 말미에 “지금까지 한 두 사람의 노파 이야기는 어느 친구한테 들은 실제로 있었던 노파들 이야기다”라며 취하는 액자형식의 서술은 무책임한 풍문에 따라 조롱과 경멸, 회화화의 대상으로 떠돌 성적 상상 속 허구적 대상이 ‘노파의 몸’임을 알게 한다.

<황혼>(79)과 <쥬디할머니>(81), <천변풍경>(81)은 현실공간에서 노인의 실존에 대한 부정이 몸에 대한 거부로 드러나고 있다. <황혼>은 “강변 아파트 7동 십팔층 3호에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남편과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로 시작한다. 모두(冒頭)의 이 문장은 아파트 내의 권력 관계를 한눈에 알게 한다. 아들 내외 집에 얹혀살며 며느리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늙은 여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늙은 여자는 아들을 장가보내고 손자를 보았으나 아직 60이 넘지 않은, 젊지도 늙지도 않은 여자이다. 서술자의 ‘늙은 여자’ 호명은 젊은 여자, 곧 며느리의 시선을 추종한 것이다. 며느리는 신혼시절부터 늙은 여자를 어머니라 잘 부르지 않다가 아이가 태어나자, 며느리와 아들, 손자가 늙은 여자를 모두 ‘할머니’라 통일해서 부른다. 며느리의 ‘할머니’ 호칭은 일차적으로 시어머니의 권위, 위세에 눌리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단란 가족’의 개념에서¹⁴⁾ 그녀를 배제한다는 저의를 내포한다. 여기서 시어머니의 늙음에 대한 강조는 아직 시어머니가 너무 젊다고 생각하는 젊은 여자의 (무)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전통적 가부장 사회에서 시어머니의 권한은 대단하고 특히 아들이 성공하였을 경우 어머니의 거침없음은 ‘중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¹⁵⁾ 젊은 여자는 바로 이 지점을 이용한다. 시어머니의 권위, 위계구도의 꺾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길, 2008, 80쪽.

14)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306-309쪽.

15) 여성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되어 나타낼 때는 허용되고 또 장려되었다. 그때 어머니는 여성이라기보다 ‘중성’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남아선호는 여성들의 생존과 성취와 직결된 자궁 가족적 계산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80-81쪽.

를 위해 홀시어머니에게서 성적 징후를 읽어내려 하는 것이다. 소화가 안되어 ‘명치’를 만져 달라는 시어머니의 접근을 질겁하며 확대해석하고, 껌칙한 할머니 방에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급기야 남편에게 ‘늙은 여자’를 억압된 성적인 욕구불만을 가진 “살 만지는 걸 바치는” 과부 노파로 규정한다. 주체는 자신에게 할당된 젠더의 반복적인 ‘인용’과 호명과 더불어 동시에 탄생되며 젠더에 선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¹⁶⁾

며느리의 독선은 늙은 여자에겐 심각한 외상으로 작용한다. 마침내 늙은 여자는 성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전면 ‘부정’하기에 이른다. 성욕은 곧 음란이고, 죽은 남편을 “성욕의 대상으로 그리워해본 적은 절대로 없었노라”는 단호한 부정(Verleugnung)은 며느리의 독선에 맞선 주체를 거부하는 방어 양식이다.¹⁷⁾ 노파는 혼자 골방에 갇혀 유희에 시간에 빠진다. “고려장의 저주로부터는 벗어났으나 성욕의 저주로부터는 못 놓여나겠구나.”라는 그녀의 탄식은 사회에 만연한 파시즘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풍자라 할 수 있다.¹⁸⁾

<주디할머니>의 ‘주디할머니’는 섹시한 할머니이다. “앞가슴은 희고 아직도 풍만했고, 포갠 다리에서 엉치까지의 선은 선정적이고” “마땅한 사람 만나면 연애라도 할 것 같은” 매력적인 육체와 미모의 소유자이다. 남달리 젊은 주디할머니의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거실 장식장

16)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61-62쪽.

17) 프로이트에게 ‘부정’은 논리적 부정과 부인의 행위 모두를 의미했다. 프로이트는 외상적 지각(traumatic perception)의 현실성을 깨닫는 데 대한 주체의 거부를 구성하는 방어의 특정 양식을 나타내기 이 용어를 사용했다. 딜런 에반스, 김종주 옮김, 『라깅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157쪽.

18) 오스카 와일드는 인종주의와 섹슈얼리티가 결합한 편견을 질타하기 위해 “악한 자들은 늙고 추하다”는 말로 사회를 패러디하였다. 일레로 유대인과 변태성욕자들은 허약하고 너무 일찍 노년기에 접어든 인물로서 그려지는 독일 연극과 발자크의 소설은 파시즘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조지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232-233쪽.

을 가득 채운, 사진들에 담긴 훌륭한 이력을 가진 남편과 출세한 자식들의 존재 덕분이다. 이러한 조화가 할머니의 특별한 미모를 ‘유복함’으로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 특별한 몸의 소유자인 ‘주디할머니’의 정체가 끝내 ‘소실’(첩)이라고 밝혀진다. 모든 장식의 허울을 벗은 할머니, 할머니의 몸은 제도의 보장을 받는 결혼이 중심이고 정상이고 행복이라는 도식¹⁹⁾과 연결되면서 민망한 ‘(팜므) 파탈 할머니’로 조롱과 회화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주디할머니를 보호하고 가려줄 ‘울’이 장식으로 밝혀진 이후, 이웃에 노출된 그녀의 몸은 위협하다. 그녀는 몰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을 떠나고자 한다. 박완서는 이 소설에서 ‘소실 할머니’의 ‘몸’을 통하여 이중적 근경에 처한 취약한 할머니의 젠더를 역설하고 있다.

<천변풍경>에 등장하는 노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홀시아버지인 ‘나’는 며느리가 자신을 귀찮게 생각하고 불편해 하는 까닭에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그는 퇴직한 남성들의 만남의 광장인 “약수터”로 간다. 직장에서 밀려난 그는 정년퇴직한 것으로 속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높여 늙음을 가장하고 ‘약수터’ 회원이 된다. ‘비사회적인 존재’는 아웃사이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²⁰⁾이라 믿기 때문이다.

노인 언어의 한 특징은 ‘허세’와 ‘생략’이다.²¹⁾ 현재는 무기력하나 과거 그들이 한때 사회에서 열렬하게 활약한 남성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직함’일 뿐이다.²²⁾ 신분을 속인 그에게 약수터 역시 장소가 되지 못

19) M. 푸코, (이혜숙 이영목 역), 『성의 역사3 - 자기에의 배려』, 나남출판, 1990. 190쪽.

20) 조지 L. 모스, 『남자의 이미지』, 126쪽.

21)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0쪽.

22) 남성적 말(Masculine speech)은 1)개인적 지위와 통제를 입증하려는 경향 2)지시적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지시성 3)대화적 구사력-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더 길게 말을 하는 경향 4)직접적이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현

한다. 피하듯 새벽에 집을 나서다 ‘나’는 문득 헤드 라이트에 비친, 알록달록한 등산복 차림의 자신의 모습을 “늙어 버림받은 어릿광대” 라며 당혹감을 떨치지 못한다.

3. ‘부인된 애착’, 젠더 해체와 모색

중기소설에 이르면 노인의 젠더탐색이 섹슈얼리티의 영역에서 어렵게 모색된다. 초기소설에서 ‘기괴한’ 몸의 표상과 더불어 대상화된 노인의 젠더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시도되는 것이다. 노인들은 그들을 읽는 외부의 시선에 맞춰 성에 대한 ‘부인된 애착’(disavowed attachment)²³⁾의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²⁴⁾ 이를 통해 젊은이/늙은이, 미/추, 선/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 균열을 내고 부정과 저항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젠더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84)은 ‘아파트’를 얻기 위하여 노인의 병수발을 들게 되는 ‘성남택’의 이야기이다. 노인의 며느리는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성남택이 잘 돌보아 주면 ‘어머니’처럼 모시고 또한 ‘13평 아파트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경향 5)추상적 6)감정적으로 절제하는 경향이 있다. 줄리아 우드, 앞의 책, 177-181쪽.

23) 젠더 정체성은 성적 애착의 상실을 요구하는 금지에 의해 형성된다. 제도에 종속된 젠더 정체성은 ‘부인된 애착’(disavowed attachment)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이성애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성애적 기호는 폐기되어야 한다.) ‘부인’되었으나, 그것에 대한 애착은 남는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부인된 애착’을, 노인이 주변에 맞춰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반하게 되는 모순적 감정, 상황, 섹슈얼리티 등에 확장하여 사용한다.

24) 양가성은 하나의 개념과 그것의 대립항, 그리고 존재의 일관성에 대한 위반, 원칙들의 욕망들, 대립적인 열망들과 적어도 진정한 것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분열된 것 사이의 공존을 내포하기 때문에 논리에 있어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존재라는 불리한 형세를 가진다. 나탈리 에니크, 『여성의 상태』, 동문선, 1999, 134쪽.

여자는 시아버지와 성남택에게 기만적 ‘성적 환영’을 덧씌우며 둘의 관계를 간병인/부인(어머니), 공적/사적 영역에 애매하게 설정함으로써 성남택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편하게 착취하는 효과를 거둔다. 여기에는 성남택의 허위의식도 한 몫을 한다. 성남택은 ‘성남택 할머니’라 불리며 대접받는 듯한 기분이 싫지 않고 아파트를 얻게 되는 행운이 좋아, ‘시어머니’처럼 침묵한다. 초기소설에서 살핀, 풍문처럼 떠도는 조롱과 경멸의 대상, 소모적인 노파의 몸과 성적 상상을 불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아들 없는 박복한 늙은이 행세를 자처하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지만 아파트는 처분되고 그녀가 부당함을 토로할 방법은 없다. “천벌을 받을 년”이라 욕설을 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협박’²⁵⁾도 할 수 없다. 성남택이 할 수 있는 일은 ‘관계의 중단’을 통해 이 폭력적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다. 관계의 중단은 점잖은 시어머니 흥내라는 ‘이미테이션’ 역할을 접고 본래의 자신을 찾는 것이다. 성남택은 나이에 비해서 젊고 건강한 여자이다. “모가지에 마늘 열 접”을 일 수 있는 건강과 경제능력을 갖춘 ‘여성’이다. 그래서 그녀는 힘이 없어 아파트는 얻지 못했으나 대신 본래의 자신의 자질인 여성성과 끈질긴 생명력을 되찾는다.

<오동의 숨은 소리여>(92)의 김노인은 자신의 회소가치가 적은 것에 ‘굴욕감’을 느끼고 파출부 아줌마가 자신을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웃돈 없어서 버려진 신세’가 된 것처럼 초라하게 느끼는 자의식 강한 노인이다. 그는 아내가 죽고 자식과 함께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결코 자식 일에 간섭하지 않음을 철칙으로 삼고 죽은 듯이 사나 그의 생의 감각과 애착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파출부 일을 돕거나

25) 노동자의 관점에 따르면 파업권은 일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이룬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소극적인 ‘협박의 형태’와 혁명적인 ‘총파업’의 경우로 나타난다. 벤야민, 앞의 글, 87쪽.

그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때이다. 노인이 아닌 남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 그는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 그는 아름답고 발랄한 아가씨의 윙크에 가슴이 설레이는 ‘뛰는 심장’을 가진 남성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며느리에 의해 “주책”으로 폄하되고 “칠십노구의 성적 능력”으로 비하되며 모욕된다. 그는 며느리의 모욕에 죽음을 생각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노인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성적인 문제는, 기실 ‘부인된 애착’이다. 젠더 정체성은 ‘부인된 애착’ 다시 말하면 성적 애착의 상실을 요구하는 금지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그의 우울은 자아를 드러내는 필요한 반응이고 상실한 것에 대한 방어이다.²⁶⁾ 그의 마음은 젊고 열정은 살아있다. “꽃이 피면 즐겁고 잎이 지면 서러운 것 느낄 능력이 정정”한 젊은 노인은 잃어버린 금지된 ‘대상-카섹시스’(object-cathexes)²⁷⁾를 찾아 그의 “보물단지”같은 목숨을 이어 젠더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듯하다.

<저물녘의 황홀>(85)은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있고 혼자 ‘빈집’에 남아 외로움과 관계상실의 고통을 겪는 노파 ‘나’의 놀라운 자기 돌봄의 치유방식을 통해 통상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방안이 도출된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 상황에 힘이 든다. 화자가 더욱 힘든 것은 자식에게 내색하지 않는 ‘의연한 어머니’로 자신의 정체를 삼은 까닭이다. 결국 견딜 수 없어 ‘나’가 치유방식으로 삼은 방식이 할아버지의 ‘본처’와 ‘애첩’으로 표상되는 각기 다른 여성상을 자기 안에서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알듯이 가부장 사회에서 본처와 애첩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융합할 수 없는 모순적 존재이다. 본처와 첩의 위계 속에, 본

26) Judith Butler, *Psychic Life of Power : Theories in Subjection*(Stanford UP, 1997), p.169.

27) ‘카섹시스’(cathexes)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리비도의 집중발현을 말하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189쪽. ‘대상-카섹시스’(object-cathexes)는 리비도의 집중발현을 실현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치는 어머니로서 근면한 주부로서 존경을 획득하고 지배권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입장을 구축하였던 것이다.²⁸⁾ 그러나 ‘조강지처’, ‘본처’ 이데올로기는 ‘어머니’라는 점잖은 여성상을 표상하는 과정에 ‘여성’이 갖는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제도에 귀착시킨 꼴이 된다.²⁹⁾ 이는 여성분열을 통해 억압적 젠더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물녘의 황홀>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친할머니와 ‘화초 할머니’는 서로 모순적이고 상보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나’는 치유할 수 없는 외로움을 자기 안에 각기 존재하는 상이한 여성성의 표출과 조화를 통해 결핍을 넘어서려 하는 전환적 발상을 드러낸다. 박완서의 놀라운 혜안이 발휘되는 지점이다. 항상 선과 진의 중심에 선 본처 어머니의 자리에서 맞은편에 서 있는 악, 허위, 주변이라고 생각해 온 타자성을 타자인 자신 안에서 화해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배려의 원칙과 인정의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이 경우 타자는 ‘고유한 정체성을 소유한 구체적 개인에 대한 인정’을 말한다.³⁰⁾ 젠더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방안을 먼저 내 안에 공존하는 각기 다른 여성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껏 드러내려 하는 데서 찾은 것이다. 여성 젠더 위계의 해체는 곧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젠더 의식의 확장이다. 이는 모든 여성 속에 본처와 애첩 기질이 공존 하듯이 노인 속에 젊은이가 살고 젊은이 안에 노인의 특징이 공존

28) ‘조강지처’로서의 자부심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간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본처를 제외한 여성은 욕심 많고 성욕이 강하여 남자를 호리고 전처의 아이들을 구박하는 식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본처 집단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85쪽.

29) 정부는 육체와 조형적인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기예로 선호된다. 그러나 일단 신부와 어머니의 위상을 획득하자마자 창조를 고갈시키고 영감을 마비시키며, 예술을 전염시키는 부르주아지 삶의 독약이 된다. 나탈리 에니크, 『여성의 상태』, 237쪽.

30) 호네프의 인정과 배려의 원칙은 ‘고유한 정체성을 소유한 구체적 개인’에 대한 인정을 주장한다. 이 개인은 인간이라는 보편성과 동시에 개인적 특수성을 지닌 존재이며 친밀한 사람들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악셀 호네프,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9-13쪽.

하는 법이다.³¹⁾ 그러므로 이 소설은 인간은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이란 공감의 도출을 마련한다.

<저문 날의 삽화 5>(88)는 ‘죽음과 삶의 질서’, 아무도 모르는 도저한 생사의 법칙을 통해, 노인을 주변인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몰아세우는 일방적 공격성에 반격을 가한다. 이 소설의 노부부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시골로 들어오고 더 깊은 시골로 내려가려 한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나 자식과 특히 손자에 대한 그들의 그리움과 애착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의 아이러니는 그들을 자식 곁으로 다시 호출한다. 박완서는 도저한 생의 역설, 죽음의 순서를 환기하며 주제의 전환(change the topic)을 마련한다. 과연 부모는 자식의 부담인가, 생사의 도저한 역설 앞에 누가 노인인가? 죽음의 순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노인인 부모의 존재는 자식을 키우고 거둔, 생명의 기원이자 또한 세대를 건너 손자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양육과 책임의 존재임이 확인된다. 노인은 죽음의 영역에 있는 자가 아니라 먼저, 생의 영역에 가까운 자가 아닌가.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 교통사고로 누구의 자식이 죽고 살았는가를 밝히는 것은 다음 일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생의 대목에서 박완서는 노인/젊은이, 부모/자식 간의 심각한 단절과 허위적 관계를 넘어설 전환적 질문을 마련하고 있다. 박완서는 참혹하나, 참척의 공포를 통해 남겨진 손자 노부모의 관계와 위치를 재고할, 절박한 인간적인 호소(desperate humanitarian SOS)³²⁾로 전환적 문제의식을 마련한다.

4. ‘타자-되기’, 젠더 구축과 윤리학

박완서 후기소설에 이르면 노인의 젠더의식은 담대해진다. 박완서는

31) 키케로, 오홍식 옮김, 『노년에 관하여』, 궁리, 2002, 63쪽.

32) Slavoj Žižek, *Violence*, New York : St. Martin's press, 2008, p.11.

초기와 중기소설을 지나면서 ‘기괴한 몸’의 표상을 ‘성’의 양가적 의미로 탐색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젠더 해체와 모색을 동시에 도모할 전환적 질문을 마련하는 투쟁의 과정을 겪는다. 이에, 후기에 이르면 노인의 젠더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율되는 것이 아닌 노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젠더를 새롭게 구축하며 노인의 고유한 자리, 주체적 젠더 윤리를 달성한다. 이러한 이해의 지평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시점호환을 통해 치열하게 달성된다.

먼저, ‘몸의 발견’이다. 초기 ‘기괴한 몸’의 선정적 접근이 아닌 ‘몸의 발견’은 노인 자신에 대한 인식의 좌표이다. 몸은 여전히 낯설다. ‘낯선 몸’은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견하는 매개항이자 동시에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타자의 존재를 발견, 인정한다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불록 나온 아랫배가 치골을 향해 급경사를 이루면서 비틀어짜 말린 명주빨래 같은 주름살이 늘쩍지근하게 처져 있었다. (36) ……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같이 아이를 만들고, 낳고 기르는 그 짐승스러운 시간을 같이한 사이가 아니면 안 되리라. 겉멋에 비해 정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46) <마른 꽃>

<마른 꽃>(95)에 드러난 몸에 대한 화자의 시선은 독자가 무색할 정도로 정직하다. 몸은 비록 늙었으나 젊음의 다름 바 없는 생생한 감각과 ‘정욕’의 단순명쾌한 논리가 작동하는 ‘청춘의 글쓰기’로 노작가의 밀도와 질적 높이를 알게 한다.³³⁾ <마른 꽃>에 드러난 늙은 몸, 낯선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이 생생한 절규야말로 시간 속에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 섹슈얼리티의 긍정이며 그들의 젊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짐승스러운 시간을 같이한 사이가 아닌’ 조박사에게

33)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인을 말하다』편, 황금가지, 2004, 261-262쪽.

자신의 늙은 몸을 보여줄 용기가 없고 그의 늙어가는 몸과 시간을 견딜 자신도 없기에 재혼을 포기한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97)의 ‘나’는 고루한 남편의 생활방식에 권태로움을 느끼고 아이교육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별거를 시작하지만 아들이 장가를 간 이후에도 남편과 합치지 않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이 부모일 뿐 부부지간, 남녀관계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아들을 장가보낸 후 혼자서 생활하며 늙어가는 남편에게 연민을 느끼고 몸의 거리가 섹슈얼리티의 부재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몸을 비비는 행동이란 그닥 알볼 일도 아니다”며 소외된 관계를 재고한다.

<마른꽃>과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서 두 화자의 대비적 선택을 두고 “유기적 가정에 대한 전면적 정당화”라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³⁴⁾ 그러나 섹슈얼리티의 촉발이 ‘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때, 노년에 처한 그녀들이 연애감정과 결혼생활의 선택/결단을 상이하게 드러냄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몸과 마음의 이 생생한 간극이야말로 노인의 젠더가 특별한 고유성을 띠고 발현될 수 있는 한 지점이다. 몸의 발견은 객관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성찰하고 전망하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박완서는 <그리움을 위하여>(01)와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97)에서 젊음이 잘 유지된 ‘개별자’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리움을 위하여>의 ‘나’의 사촌 여동생은 환갑 진갑 다 지났으나 “불이 늘 밧그레하고 주름살이라곤 없는 데 살피듬까지 좋아서 오십대 초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미모의 여인으로 남편 병수발을 위하여 파출부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착하고 착실한 여자이다. 그런 사촌 여동생에게 남해의 먼 섬 ‘사랑도’에서 프로포즈가 들어온 것이다. 반찬 솜씨가

34) 황국명은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결말이 돌연하고 석연찮다는 느낌은 가정풍경의 선조적 시간, 완고한 가족제도를 염두에 둔 까닭이라 지적한다. 황국명, 「한국소설의 말년에 관한 연구」, 『오늘의 문예비평』, 2008, 가을 70호, 72쪽.

좋아 내 집의 격을 높여주는 동생의 재혼 소식에 ‘나’는 까닭 모를 상실감을 느끼며 “이게 얼마나 우세스러운 일이냐”며 욕이오 때 ‘폐과부’의 ‘수절’을 강조하며 여동생의 동생들을 자극하여 결혼을 저지하려고 하나 실패한다. “폐과부는 폐죽음 때문에 생겨난 건데 어디로 개가를 하겠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누님의 행복”이란 남동생의 말로 간단히 끝난다. 이는 ‘나’가 저지할 힘과 명분이 없음을 역설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리하여 여동생은 남해 “사랑도”에서 신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은 남해의 섬. 노란 은행잎이 푸른 잔디 위로 지는 곳. 칠십에도 섹시한 어부가 방금 청정지역에서 낚아 올린 분홍빛 도미를 자랑스럽게 들고 요리 잘하는 어여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이 있는 섬. 그런 섬을 생각할 때 마다 가슴에 그리움이 샘물처럼 고인다. 그림다는 느낌은 축복이다. (40) <그리움을 위하여>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동생이 새 출발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 “사랑도”이듯이 이들의 새 삶은 자연스러운 상황의 산물로 해석된다. 우선 여동생의 ‘미모’와 ‘심성’ 그리고 ‘생명력’, 제부의 ‘젊음’과 ‘재력’, ‘인품’의 강조는 변함없는 여성성, 남성성의 젠더 덕목을 갖춘 그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로맨스 성취는 자연스럽게 보이고³⁵⁾, ‘어부’와 ‘아내’로 서로 만족하며 사는 그들의 “특수한 생활세계에서 기인한 보편성의 부각”이라는 미학적 의미를 획득한다.³⁶⁾ 노인의 성에 대한 완고한 이원성이

35)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호하는 젠더 덕목은 남아있다. 즉 남성은 강하고 야망 있으며 성공적이고 이성적이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진정한 남성은 여전히 울지 않고 남의 도움도 받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남성이란 직업적, 공적 생활에서 성공하고 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스럽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력적이고 공손하며 감정적이고 돌보기를 좋아하며 사람과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진정한 여성은 여전히 외모가 중요하고(매우 아름답거나 섹시해야 하고) 아이를 아주 좋아하며 가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줄리아 우드, 한희정 옮김, 『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33-34쪽.

후기 노년 소설에 이르러 급물살을 타고 해체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시선으로 고유한 개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는 작가의 논리이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오랫동안 두 집 살림을 하며 난봉꾼으로서 어머니의 속을 썩인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화해를 딸의 시점으로 매개한다. 화해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다. 어머니는 본부인의 위엄을 지키다 말년에 항문의 괄약근이 고무줄이 빠진 것처럼 열린 채 오므라드는 작용을 못하는 병에 걸려 죽는다. “사람 팔자는 관뚜껑 덮을 때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해한 숙제로구나”라며 ‘나’는 어머니에 대한 회한을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치환하지 않고 아버지의 남성성, 건강, 나아가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승화한다.

아버지에 대한 화해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여성의 삶을 조강지처와 첩으로 이분하여 억압하였듯이 남성의 삶 역시 가부장의 기준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열린 시선이다. 아버지는 애초에 애정 없이 결혼한 아내에게 집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충실했다. 가부장의 덕목에서 벗어난 아버지는 줄곧 폼하와 증오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딸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한 남성인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어머니 사후의 아버지를 보는 딸의 시선이란 점에서 박완서가 모든 난봉꾼 가부장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일방의 시선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고유하고 개성적인 개별자인 인간, ‘로맨스’를 꿈꾸는 젊은 아버지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아버지 나아가 노인의 실존, 젠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36) The key moment of any theoretical—and indeed ethical, political, and, as Badiou demonstrated, even aesthetic—struggle is *the rise of universality out of the particular lifeworld*. Slavoj Žižek, *VIOLENCE*, p.152.

박완서의 <대범한 밥상>(06)은 여전히, 노인의 성에 대해 ‘상식’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재단하며 즐기는 폭력적인 시선과 그 시선과 무관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담대한 노인의 젠더를 동시에 조명하고 있다. <대범한 밥상>에 이르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넘어서는 노인의 젠더 정체성을 새로 구축하는 노인을 만날 수 있다. 여기서 노인은 대상이 아닌 진정한 주체로 거듭난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나’의 친구 경실은 딸의 집에 얹혀살던 과부인데 줄지에 딸 내외가 죽는 참적을 겪으며 남겨진 손자 손녀를 할아버인 사돈 영감과 동거하며 함께 기른다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경실의 진실을 알기까지 한참을 돌아 구구한 억측의 소문을 풀어 놓다 사건의 전모를 말미에 밝힌다. ‘나’와 친구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도덕의 킴새” “상피 붙는 것보다 더한 스캔들”로 혹은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후견인 자처” 등으로 해석하며 경원시하지만, 소문과 사실은 너무나 다르다.

부모를 잃은 아이는 두 노인네를 부모처럼 여기며 같이 살길 원하고 경실에게 이것은 “선택의 여지없이 자연스러웠던 일”이 된다. 따라서 갈등 끝에 마침내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상식은 무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며 아이가 성장해 대학에 진학할 때 까지 아이들을 위해 이들이 함께 산 것이다. 노인이 수용한 것은 바로 아이의 시선이 갖는 단순성(simplicity)과 자연성(naturalness)이며, 주인공 경실 할머니와 사돈 영감은 참척의 상황에서 도피(escape)가 아닌 변화(exchange)를 시도한 것이다.³⁷⁾

37) 도리스 레싱과 박완서의 유사관계를 알게한다. 도리스 레싱은 위즈워스의 유명한 시귀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갖든 관계의 도저한 역설을 강조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시선이 갖는 단순성(simplicity)과 자연성(naturalness)의 회복이다. 레싱은 여기에 착안하여 아이와 어른간의 관계는 성숙하고 진보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데 이것은 도피(escape)가 아닌 변화(exchange)여야 한다고 했다. 박완서의 <대범한 밥상>에서 보인 이러한 놀라운 선택은 시공을 초월한 여성 대문호 간의 교섭이라 생각된다. Josna Rege, “The child is Mother of the Woman: Exchange between

잠만 잤어. 그렇지만 영감인이 판 짓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해도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그 짓이라도 그 영감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말이야.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못 내주냐 못 내주길. (227) <대범한 밥상>

경실 할머니의 말은 ‘역설’(paradox)로 해석할 수 있다. 주체-화의 선상에서 생성하는 주체는 사회적 통념의 체계(sens)에서 벗어나는 ‘non-sense’를 살아가는 주체이다. 여기서 ‘non’은 단순한 부정도 또 무의미한 부정도 아닌 새로운 의미의 잠재성으로서의 ‘non’이다.³⁸⁾ 다시 말하면 천박한 호기심에 눈만 번득일 뿐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사실상, 가치 없는 것이다. 이는 내부의 갈등과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해안이다. 세상의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을 넘어선 진실, ‘양육’과 ‘책임’은 자신을 버리고 지우며 삶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두 노인은 억압을 인정하며 억압을 풀고 넘어선다. 억압된 것에 대한 일종의 지적 수용이 이루어진 것이다.³⁹⁾

두 노인은 ‘사돈지간’이란 이름에서 탈주하며 자신을 버림으로써 ‘특정한 형태의 주체’ 곧 ‘타자-되기’를 도모한다. 타자-되기란 결국 ‘우리’되기이다. 되기란 관계 속에 들어감이며 사이에서 자신과 타자의 동시적인 변이를 꾀하는 것 이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⁴⁰⁾ 이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다. 젠더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박완서가 제시한 담대한 노인의 숭고한 젠더는 또 다른 젠더 의식을 낳고 우리의 의식을 확장

Age and Youth in Doris Lessing”, *Doris Lessing Studies* 24. 1&2, 2004: pp.6-7.

38)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56쪽.

39)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8, 198-199쪽.

40) 역동적-피비우스적 이율배반의 선상에서 생성하는 이중체로서의 ‘sub-jectum’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선상을 따라가면서 술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들로서의 ‘우리’들을 살아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정우, 앞의 책, 88쪽.

하며 더불어 우리 삶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갈 것이다.⁴¹⁾

박완서는 30여 년의 끈질긴 젠더 추적 끝에 마침내 노인의 역할, ‘젠더 수행’을 통해 노인의 실존적 의미에 답하는 노인의 주체적 젠더를 구축한다. 이로써 박완서 노년 소설의 젠더시학이 완성된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박완서의 전 시기에 걸친 단편 중 노년소설을 대상으로 노인의 젠더를 살펴보았다. 젠더는 시대적 보편성과 개인적 고유성을 함께 아우르며 인간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지금껏 젠더연구는 실제로 젊은 남녀에게 한정되었고 노인의 젠더는 진지한 성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박완서는 거의 30여 년에 걸쳐 자신의 소설을 통해 노인의 젠더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고 있는데 초기-중기-후기에 걸쳐 나뉘지며 현실과 삶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초기에는 주변화된 노인의 ‘젠더’가 ‘기괴한’ 몸으로 표상된다. ‘기괴한 몸’으로 표상된 노인의 젠더는 노인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폭력적 시선을 반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적 존재로 드러날 때 노파의 몸은 위기상황에 가차 없이 내던져질 수 있는 ‘비체’이거나(<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조롱의 대상(<쥬디할머니>), 자신의 몸을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늙어 버림받은 어릿광대’(<천변풍경>)로 재현된다. 박완서는 ‘늙은이의 몸’이란 이중적 소외장치를 통하여 어디에도 소속되기 어려운 노인의 취약성을 역설한다.

중기에는 ‘부인된 애착’, 섹슈얼리티의 양가성을 통하여 젠더를 해체하

41) 영어로 젠더(gender)는 프랑스어의 장르나 스페인어인 헤네로와 마찬가지로 ‘낳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게네라’(generare)에서 왔다.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탁선미 김륜옥 장춘익 장미영 역), 『젠더연구-성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나남출판, 2002, 20-21쪽.

고 새롭게 조명한다. ‘젊잖은 노인네’가 되기 위해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고 성욕을 부인하며 살고자 하나 ‘생’과 ‘성’에 대한 애착을 거둘 수는 없다. 따라서 금지와 규범에 의해 억압된 허위적 자아를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실존을 되찾으며(<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역동적 생명을 인정하고 열정의 대상을 찾고자 한다. (<오동의 숨은 소리여>) 또한 억압적 젠더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여성 간 젠더 위계를 허물며(<저물녘의 황홀>)자신을 치유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낸다. 나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재고할 주체의 전환(change the topic)을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생의 이면, 죽음의 순서에 답아(<저문 날의 삽화 5>) 역설한다.

후기에 이르면 주변부적 젠더 정체성을 극복하고 고유하고 담대한 노년의 자리, 젠더를 구축한다. 그간 주저되고 유보되었던 노인의 연애(<마른 꽃>)와 재혼(<그리움을 위하여>), 섹슈얼리티의 응시(<너무도 쓸쓸한 당신>)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현되고, 가부장과 아버지의 로맨스에 대한 이해가(<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노인군(群)’으로 묶을 수 없는, 개인차와 고유한 개별성을 인정한 것이자 젠더가 본질이나 규범이 아니라 젠더 수행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적 지표임을 드러낸 것이다. <대범한 밥상>에서 보인 노인의 담대한 젠더 수행은 우리 안의 속악한 상상과 천박한 상식을 준엄하게 일깨워 줄 어른, 노인 젠더의 고유한 주체성을 드러낸다. 노인의 젠더 구축은 생의 질서에 기반한 긍정이자 진정한 주체 회복으로 젠더윤리 회복이란 지평을 긋는다.

박완서는 노년소설의 젠더시학을 통하여 우리 안의 편견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설 새로운 노인 주체, 타자-되기의 수행을 통하여 자신과 타자의 동시적인 변이를 도모하는 젠더 윤리, 젠더 정치학을 달성하고 있다. 노작가 박완서의 젠더탐색을 따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지평이 동시에 열림을 알게 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8.
_____ 2,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_____ 3,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문학동네, 2006.
_____ 4,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_____ 5,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06.
_____ 6,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9.
박완서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 지성사, 2007.

2차 자료

- 김미현, 「웬 아임 올드」,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인을 말하다』편, 황금가지, 2004, 282쪽.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인을 말하다』편, 황금가지, 2004, 264쪽.
김은영, 「박완서 단편소설 연구 - 가족을 중심으로」,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08, 510-516쪽.
박상미, 「박완서 소설연구 - 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3.
변정화, 「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 이선의 <이사>와 <뿌리내리기>를 대상으로」,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174-175쪽.

- 서정자, 「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 - 최근 10년의 노년 소설에 나타난 노인의식과 서사구조」, 초당대학교 논문집, 1995.
-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 이정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들 삶의 변화 양상 - ‘긍정적으로 늙어가기’의 관점에서」, 『현대소설연구』, 제4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0쪽.
- 황국명, 「한국소설의 말년에 대한 사유」, 『오늘의 문예비평』, 2008년 가을호, 통권 70호, 산지니, 72쪽.
- 나탈리 에니크, 서민원역, 『여성의 상태』, 동문선, 1999.
- 딜런 에반스, 김종주 옮김,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 미셸 푸코, 이해숙 이영목 역, 『성의 역사3 - 자기에의 배려』, 나남출판, 1990.
- 발터 벤야민, 최성만역 「폭력 비판을 위하여」, 길, 2008.
- 악셀 호네프,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 조지 L. 모스, 이광조역 『남자의 이미지』, 문예출판사, 2004.
- 조지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 줄리아 우드, 한희정 옮김, 『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탁선미 외역, 『젠더연구』, 나남출

판, 2002.

키케로, 오홍식 옮김, 『노년에 관하여』, 궁리, 2002.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8.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6.

Josna Rege, “*The child is Mother of the Woman: Exchange between Age and Youth in Doris Lessing*”, *Doris Lessing Studies* 24. 1&2, 2004, pp.6-7.

Judith Butler, *Psychic Life of Power : 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UP, 1997.

Slavoj Žižek, *Violence*, New York : St. Martin's press, 2008.

<Abstract>

Gender Poetics found in Park Wan Seo's Old
age novel

- Focusing on a collection of her short stories -

Jung, Mi-Sook·Yu, Je-B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ark Wan Seo approached the gender of characters(old men or women) in her novel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reviewed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that the novelist wrote. Surprisingly, Park Wan Seo has built up her own unique literature on the old generation as she has continuously paid attention to the gender of old people and seriously has dealt with it through works of pure literature(short storie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So far, gender has been treated as a political issue in the field of cultural research. But as far as old people are concerned, their gender has failed to be considered as a part of sexual interest. For Park Wan Seo, exploring the gender of old people has been one of the main axes of her epic. Through the move, she has accused and witnessed violent logics that we have used to exclude and have a prejudice against the gender of old people.

Park Wan Seo's early, middle and late novels for old people are clear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revealing gender poetics based on which she depicts the reality of old people's gender and, accordingly, provides a new prospect. In the early novels, the gender of old people who have been pushed away from mainstream is given attention with

their uncanny bodies focused. Here, ‘uncanny’ implies that we tend to negate old people as sexual being. In the middle novels, the gender of old people is shed light on with ambivalence between ‘negated affection’ and ‘sexuality’. Here, the use of ambivalence is a strategy to newly establish old people's gender identity, And the new identity is something beyond dichotomy between old and young people or between right and wrong. In the late novels, there's an emergence of so-called the ‘particular being’ who overcomes his or her conventional gender identity through thinking in a reverse way and newly establishes his or her position as an older person, especially in terms of gender identity.

The newly established gender identity opens the horizontal for the restoration of gender ethics that stresses people, whether old or not, to comply with the order of life and take their life positive as it is. In her novels dealing with the old generation, Park Wan Seo uses her gender poetics to go beyond logics with which we exclude and have a prejudice against the gender of old people. The transcendence of the logics leads to the creation of a new old subject as the ‘particular being’. This being represents the new formation of gender ethics or gender politics that removes fixed notions about the gender of old people and develops, expand and deepen new norms about it.

Key Words : Park wanseo, uncanny, old age novel, violence, ambivalence, Judith Butler, being others

■ 논문접수 : 2010년 3월 10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